# 구역예배 말씀

제4권 (4단원 :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

## (제23과) 하나님을 공경한 루디아

- **본문** : 사도행전 16:11-15
- **요절** :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행 16:14)
- **찬송** : 186장(새찬송가 254장), 189장(새찬송가 257장)

지난날 사도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에 당도한 사건은 세계사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전파된 기독교가 유럽 문명의 뼈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유럽 문명도 싣고 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처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곳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이며, 그곳에서 거둔 전도의 첫 열매는 자주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녀는 안식일에 강가에 있는 기도처에 갔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회심하자 곧장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다 세례를 받게 하는 열성을 보였습니다. 또 그녀는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유숙케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루디아의 헌신은 빌립보 복음화는 물론, 사도 바울의 계속된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1.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습니다.

루디아는 염직(染織) 기술이 발달한 두아디라 성 태생으로 자주 빛깔의 옷감을 사고파는 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본디 자주 빛깔의 옷은 왕족이나 귀족이 입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녀가 퍽 부유한 상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녀는 일찍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공경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관습이 있었는데,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고 다만 성밖 강가에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배 처소가 변변치 않고 성밖에 있었지만, 루디아는 안식일이 되면 사업을 쉬고 반드시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러한 그녀의 신앙 자세를 기쁘게 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와 같이 타락한 세태에서 그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공경했던 루디아의 신앙 자세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세상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끈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 2. 루디아는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곳에 적잖은 수의 여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루디아는 아름다운 전도의 본을 보여 줍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와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가족 복음화는 주님의 뜻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보십시오. 그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뿐 아니라 그 밤에 온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고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고 하였습니다. 가족 복음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심한 고통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혈육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할 것을 생각하면 어떠한 고난도 능히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왔습니다. 그런즉 하루속히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 모두 더욱 전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3. 루디아는 복음 사역을 위해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는 구원을 받자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유숙하도록 배려하였고, 또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아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다른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도 변함없이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훗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예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빌 4:15,16)라고, 그녀를 포함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어린 후원에 감사하였습니다. 이처럼 루디아가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까닭은 구원받은 감격과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감사가 그녀의 마음속에 넘쳤기 때문입니다. 본디 바울은 손수 천막을 지어서 선교 비용을 대고 성도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루디아는 기꺼이 물질을 바쳐 헌신함으로써 복음의 멍에를 함께 매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고 하였습니다. 멸망에 처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복음 전도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재물을 드려 헌신함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가정과 생업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성도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는 루디아처럼 경건하고 헌신적인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루디아를 본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기쁨으로 드리며 헌신하는 성도가 됩시다.